

少陽少陰人과 太陽太陰人の 汗, 大便, 小便, 消化에 관한 임상적 비교 연구

박효진 · 이영섭 · 박성식

동국대학교 사상체질과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Sweat, Stool, Urine, Digestion) of Soyang · Soeumin and Taeyang · Taeumin in Sasang Constitution

Park Hyo-Jin, Lee Yung-Seop, Park Seong-Sik

Dept.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ongguk Univ.

1. Objectives

There are many studies on the ordinary symptoms based on Sasang constitution. But there are not quite satisfactory between the types of Sasang constitution. So This study is for learning the characteristics of ordinary symptoms depending on Soyangin · Soeumin and Taeyangin · Taeumin of the Sasang constitution.

2. Methods

One thousand and two hundred twenty nine subjects were included in Bundang Oriental Hospital of Dongguk University. We classified them into the each type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SCM) by the well-trained SCM specialist, and assessed their ordinary features by the questionnaire. Binar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applied to evaluate the influence of ordinary features to the diagnosis of SCM.

3. Results

- (1) Compared to Taeyangin · Taeumin, Soyangin · Soeumin do not sweat a lot. Even if Soyangin · Soeumin do sweat, one does not feel refreshed. Soyangin · Soeumin do not sweat while sleeping at night nor eating meals, but discharges cold sweat if one does not feel well.
- (2) Compared to Taeyangin · Taeumin, Soyangin · Soeumin go to stool less frequently and have diarrhea when one does not feel well. Soyangin · Soeumin do not feel irritated even though one is not able to go to stool for one day.
- (3) Compared to Taeyangin · Taeumin, Soyangin · Soeumin do not have foams in urine.
- (4) Compared to Taeyangin · Taeumin, Soyangin · Soeumin tend to eat slow, do not eat a lot normally, do not have a great appetite, have problems for digestion, and especially have difficulties in digestion when one is stressed.

4. Conclusions

We found that Taeyangin · Taeumin and Soyangin · Soeumin have characteristics of ordinary symptoms, but partly there are not in accordance with ones what Lee Je-Ma said in his book. So in future we hope clinical studies are required steadily.

Key words : Soyangin · Soeumin, Taeyangin · Taeumin, Ordinary Symptoms (sweat, stool, urine, digestion)

I. 緒 論

東武 李濟馬는 『東醫壽世保元』¹에서 선천적인 臟腑의 大小에 따른 太陽人, 太陰人, 少陽人, 少陰人의 四象體質을 정의¹⁾하면서, 그에 따른 체질별 體形氣像, 容貌詞氣, 性質才幹, 恒心, 完

• 접수일 2006년 02월 17일; 승인일 2006년 03월 31일
• 교신저자 : 박성식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87-2 사상체질과
Tel : +82-31-710-3723 FAX : +82-31-710-3780
E-mail : parkss@dongguk.edu

實無病을 통해 體質辨證과 病症 및 치료방법이 서로 다음을 말하고 있다.

東武가 제시한 體形氣像, 性質才幹, 容貌詞氣, 體質病證 등을 총괄적으로 고려하여 체질을 진단하는 것이 四象體質診斷의 전통적이면서도, 지금까지 사용되는 방법의 핵심인 것이다.

四象體質診斷은 또한 素證이라고 할 수 있는 평소의 生理的, 病理的 증상의 관찰을 통해서도 가능한 데, 이와 관련된 내용은 『東醫壽世保元』 뿐만아니라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이하 『草本卷』)』²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草本卷』에서는 生理的, 病理的 특징을 太少陰陽人 체질별로 비교하기도 하고, 太陽人·太陰人과 少陽人·少陰人 으로 나누어 비교·설명²⁾하기도 하며, 太陽人·少陽人과 太陰人·少陰人 으로 나누어 비교·설명³⁾하기도 하고, 太陽人·少陰人과 太陰人·少陽人으로 나누어 비교·설명⁴⁾하기도 한다.

四象人 개별 특징에 대한 연구·보고는 素證과 관련한 病症論에 관한 고찰³에서부터, 體質別 素證의 특징⁴ 및 素證에 관한 연구⁵를 비롯하여 大便^{6,7}, 小便⁸, 땀^{8,9}, 睡眠^{10,11}, 消化 관련¹² 등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보고 되었고, 太少陰陽人 개별체질의 素證에 관한 임상연구⁴와 太陽少陽人과 太陰少陰人의 임상연구¹³는 있었지만, 少陽人·少陰人과 太陽人·太陰人의 비교연구는 드물다. 이에 본 연구는 『草本卷』에서 “太陽太陰 身體多汗則無病 乏汗則有病 少陽少陰 身體乏汗則無病 多汗則有病”이라 한 것에 의거하여, 少陽人·少陰人과 太陽人·太陰人의 汗, 大便, 小便, 消化에 대하여 임상적 검토를 통해 문헌적으로 기술된 내용을 비교해 보고자 하였다.

1) 人稟臟理 有四不同 肺大而肝小者 名曰 太陽人 肝大而肺小者 名曰 太陰人 脾大而腎小者 名曰 少陽人 腎大而脾小者 名曰 少陰人

2) 太陽太陰 身體多汗則無病 乏汗則有病 少陽少陰 身體乏汗則無病 多汗則有病.

3) 太陽少陽 寢眠呼吸緩端寬臥靜重則吉 太陰少陰 寢眠呼吸洪壯轉輾有力則 吉

4) 太陽少陰 天行時氣 十日內 病症有進無退則 其病必死 太陰少陽 天行時氣 二十日內 病症有進無退 其病必死

II. 研究對象 및 方法

1. 연구대상

2002년 10월 28일부터 2004년 2월 16일까지 동국대학교 분당 한방병원 사상체질과에 초진으로 내원한 외래환자 1,229명을 대상으로, 사상체질의학 전문의를 통해 체질진단을 받고 사상체질처방의 약물치료나 침구치료를 받은 환자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2. 연구방법

1) 자료조사

사상체질의학 전문의에 의해 체질진단과 치료를 거친 상술한 1,229명의 대상자들이 사상체질과 설문지를 직접 작성하였고, 본인 작성이 어려운 경우 보호자의 도움을 통해 작성하였다.

체질진단 후 사상체질처방의 약물치료나 침구치료를 받고 두통, 설사 등 특별한 부작용을 호소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에 사용한 설문지는 땀, 대변, 소변, 소화에 대한 4가지 항목으로 구성하였다(부록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 BMI 지수(body mass index, 체중(kg)/키(m)²)를 비교해 보고, 설문지 응답 자료를 통해 체질별 문항의 응답분포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2) 자료처리 및 통계

설문지 문항의 응답은 “전혀 아니다”는 1, “아니다”는 2, “보통”은 3, “그렇다”는 4, “매우 그렇다”는 5로 모두 코드화하여 전산 입력하였고, 少陽人·少陰人을 少人으로, 太陽人·太陰人을 太人으로 입력하여 비교하였다.

설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서 BMI 지수의 비교는 T-test를 이용하였고, 연구 결과 분석은 이항 로지스틱 분석법을 사용하였다.

설문문항에 대하여 얻어진 p 값이 0.1이하로 나타나는 유의성을 띤 문항을 고르고, 이항 로지스틱 분석에서 영향력의 정도를 나타내는 표준화계수의 크기순으로 분석결과를 나열하였다. 자료에 대한 통계처리 분석은 SAS 8.0 프로그램

Table 1. The Distribution of the Sex and the Constitution on Patient

	Soeumin	Soyangin	Taeumin	Taeyangin	Total
Male	50 ^{a)} (4.06%)	261(21.25%)	207(16.84%)	11(0.90%)	529(43.05%)
Female	439(35.72%)	104(8.46%)	154(12.53%)	3(0.24%)	700(56.95%)
total	854(69.49%)		375(30.51%)		1,229(100.00%)

^{a)} % within total

Table 2. BMI of Experimental Participants

	少陽少陰人 (N=854)	太陽太陰人 (N=375)	total(N=1229)
BMI	21.66±2.54 ^{a)}	25.61±2.87	22.86±3.21

^{a)} mean±S.D p<0.001

¹⁴⁾을 사용하였다.

는 의미이다.

Ⅲ. 研究結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 少陽人陰人과 太陽太陰人의 성별 분포
 少陽少陰人이 854명, 太陽太陰人이 375명이
 었다. 체질에 따른 성별분포는 Table 1과 같다.
 2) 少陽少陰人과 太陽太陰人의 BMI 지수
 少陽少陰人과 太陽太陰人의 BMI 지수를 비
 교한 결과, 少陽少陰人의 BMI 지수는 평균
 21.66(S.D:2.54)로 太陽太陰人의 BMI 지수 평균
 인 25.61(S.D:2.87) 보다 현저히 낮은 수치를 보여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2. 少陽少陰人·太陽太陰人別 설문지 문항의 응답분포 결과

少陽少陰人과 太陽太陰人 체질간의 두 가지
 종속변수에 대한 비교를 위해, 이항 로지스틱
 분석법을 이용해 체질별 특성을 분석, 비교해
 보았다.

少陽少陰人과 太陽太陰人의 체질분류에 영향
 을 미치는 문항을 선별하였고, 표준화계수의 크
 기가 체질 변별에 대한 영향력의 정도를 나타내
 는데, 양의 값일수록 해당문항에서 “그렇다” 또
 는 “매우 그렇다”로 답할 가능성이 많다는 의미
 이며, 음의 값은 그 반대로 답할 가능성이 많다

1) 땀 문항 분석

Table 3은 10 개의 땀 문항에 대하여 이항 로지
 스틱 분석을 시행한 결과이다.

少陽少陰人과 太陽太陰人의 변별에 영향력이
 있는 문항은, 문항1(평소에 땀을 많이 흘린다),
 문항2(땀을 흘리고 나면 상쾌하다), 문항8(밤에
 잘 때 땀이 난다), 문항8(몸 상태가 나쁠 때 식은
 땀이 난다), 문항3(식사할 때 땀이 난다)의 순으
 로 나타났다.

따라서, 少陽少陰人이 太陽太陰人보다 평소
 에 땀을 많이 흘리지 않고, 땀을 흘리고 나면 상
 쾌하지 않으며, 밤에 잘 때 땀이 나지 않고, 몸
 상태가 나쁠 때 식은땀이 나며, 식사할 때 땀이
 나지 않는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2) 대변 문항의 분석

Table 4는 10 개의 대변 문항에 대하여 이항 로
 지스틱 분석을 시행한 결과이다.

少陽少陰人과 太陽太陰人의 변별에 영향력이
 있는 문항은, 문항9(대변의 빈도는?), 문항7(몸
 상태가 나쁠 때 설사가 생긴다), 문항6(대변을
 하루라도 보지 못하면 답답하다)의 순으로 나타
 났다.

따라서, 少陽少陰人이 太陽太陰人보다 대변
 을 보는 빈도가 적으며, 몸 상태가 나쁠 때 설사
 가 생기며, 대변을 하루 거르더라도 답답함을

Table 3. The Analysis of Sweat Questionnaire (p<0.1)

	少陽少陰人 vs 太陽太陰人
	SIB*
문항 1. 평소에 땀을 많이 흘린다.	-0.1779
문항 2. 땀을 흘리고 나면 상쾌하다.	-0.1056
문항 4. 밤에 잘 때 땀이 난다.	-0.1010
문항 8. 몸 상태가 나쁠 때 식은땀이 난다.	0.0973
문항 3. 식사할 때 땀이 난다.	-0.0811

* SIB(Standardized beta coefficient)

Table 4. The Analysis of Stool Questionnaire (p<0.1)

	少陽少陰人 vs 太陽太陰人
	SIB*
문항 9. 대변의 빈도는?	0.2028
문항 7. 몸 상태가 나쁠 때 설사가 생긴다.	0.1474
문항 6. 대변을 하루라도 보지 못하면 답답하다.	-0.0932

* SIB(Standardized beta coefficient)

Table 5. The Analysis of Urine Questionnaire (p<0.1)

	少陽少陰人 vs 太陽太陰人
	SIB*
문항 5. 소변에 거품이 많다.	-0.0926

* SIB(Standardized beta coefficient)

느끼지 않는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3) 소변 문항의 분석

Table 5는 10개의 소변 문항에 대하여 이항 로지스틱 분석을 시행한 결과이다.

少陽少陰人과 太陽太陰人의 변별에 영향력이 있는 문항은 문항5(소변에 거품이 많다) 한 문항으로, 少陽少陰人이 太陽太陰人에 비해 소변에 거품이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4) 소화 문항의 분석

Table 6은 10개의 대변 문항에 대하여 이항 로지스틱 분석을 시행한 결과이다.

少陽少陰人과 太陽太陰人의 변별에 영향력이 있는 문항은, 문항3(식사속도가 빠른 편이다), 문항 1(평소 식사량이 많은 편이다), 문항 2(식욕이 왕성한 편이다), 문항6(식욕이 왕성한 편이

다), 문항 11(신경을 쓰면 소화가 되지 않는다)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少陽少陰人이 太陽太陰人보다 식사속도가 빠르지 않고, 평소 식사량이 많지 않으며, 식욕이 왕성하지 않고, 소화가 잘 되지 않는 편이며, 신경을 쓰면 소화가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考 察

1,229명의 기존 체질진단과 치료를 거친 대상 집단에게 素證을 땀, 大便, 小便, 消化에 대해 설문을 시행, 분석하여 少陽少陰人과 太陽太陰人의 변별에 영향력이 있는 문항들을 살펴보았다.

땀 문항의 분석결과, 太陽太陰人일수록 평소에 땀을 많이 흘리고, 땀을 많이 흘리고 나면 상쾌하며, 밤에 잘 때 땀이 나며 식사할 때 땀이

Table 6. The Analysis of Digestion Questionnaire

(p<0.1)

	少陽少陰人 vs 太陽太陰人
	STB*
문항 3. 식사속도가 빠른 편이다.	-0.1574
문항 1. 평소 식사량이 많은 편이다.	-0.1224
문항 2. 식욕이 왕성한 편이다.	-0.0872
문항 6. 소화가 잘 되는 편이다.	-0.0823
문항 11. 신경을 쓰면 소화가 되지 않는다.	0.071

* STB(Standardized beta coefficient)

나는 것으로 나타났고, 少陽少陰人일수록 몸 상태가 나쁠 때 식은 땀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草本卷』⁵⁾에서 언급한 것과 거의 일치하였다.

사상인 개별 체질별로 살펴보면, 太陽人의 경우 『草本卷』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汗出에 대한 언급이 없다. 하지만, 太陽人의 臟腑屬性상 汗出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偏少之臟인 肝의 吸取之氣에 대한 문제(小便량의 감소)가 없다면 肺大하여 汗出한 것은 평상시에 어느 정도 잘 이뤄질 것으로 생각된다. 太陰人의 경우 汗出은 完實無病의 조건으로써, 『草本卷』과 『東醫壽世保元』에서도 공통적으로 偏少之臟인 肺의 呼散之氣의 발회로써 대부분 긍정적인 시각으로 표현하고 있다. 단지 『草本卷』에서 太陰人의 病이 풀어지는 과정과 汗의 양태를 설명하면서 언급된 冷汗⁶⁾을 제외하고는 太陰人 汗出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다. 少陽人에 있어서 汗은 두 가지로 관찰되는데, 하나는 表病에서 病이 풀릴 때 降陰되는 현상⁷⁾이고, 두 번째는 裏證에서 陽弱하여 清陽之氣가 완전히 상승하지 못할 때 나타난다. 少陰人에 있어 汗은 太

陰人과는 달리 病的으로 아주 중요시 여기는데, 表病證에 發汗有無에 따라 病證이 구분되는 것도 그러하고, 汗이 나는 것은 亡陽으로 빠질 수 있는 急證으로써 평소 裏煩汗多한 경우 亡陽證이 잘 생긴다고 하면서 평소에 補陽할 것을 말하고 있다. 虛汗 역시 太陰人과 달리 大病이라 하여 汗出을 太陰人과는 다르게 인식을 하고 있다. 이처럼 氣液之氣病證에서 小便과 함께 설명되어지는 汗이 脾胃에 의해 出納水穀하는 少陰人·少陽人 체질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땀 문항에서 太陽太陰人이 少陽少陰人에 비해 문항1(평소에 汗을 흘린다), 문항2(땀을 흘리고 나면 상쾌하다) 문항4(밤에 잘 때 汗이 난다) 문항3(식사할 때 汗이 난다) 등의 설문항목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것과 太陽太陰人체질의 汗出을 살펴보았을 때와 일치하는 결과를 나타내었고, 少陽少陰人이 太陽太陰人에 비해 문항8(몸 상태가 나쁠 때 식은땀이 난다)에서 긍정적인 답변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水穀관련 少陽少陰人체질에서 汗出이 病的으로 나타나는 것을 고려해보면 유사한 결과지만, 太陰人에게도 있을 수 있는 冷汗을 고려하면 결과는 달라질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大便과 관련하여 문헌을 살펴보면, 水穀之氣病證을 가진 少陽少陰人체질에 있어서 大便善通은 少陽人에게 完實無病의 조건으로써 건강한 상태에서는 頭燥尾活하고 體大而疏通하며 糞수는 최소 하루 1회 이상이지만⁸⁾, 조금씩 자주 설사⁹⁾하거나 大便不通¹⁰⁾한 것은 病的인 것

5) 太陽太陰 身體多汗則無病 乏汗則有病
 6)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 「病變」 第五統 “太陰人急病 身冷而全體四肢俱大汗者 危證也 但身溫而頂顛項背次第得汗者 吉兆也 太陰之汗 始於頂者 可喜也 中於顛者 免危也 終於背者 病愈也”
 7) 『東醫壽世保元』 「少陽人脾受寒表寒病論」 “少陽人 傷寒病 有再痛三痛 發汗而有者 此病 非再三感風寒 而再痛發汗 三痛發汗也 少陽人 頭痛腦強 寒熱往來 耳聾胸滿 尤甚之病 元來如此 表邪深結 至於三痛然後方解也 無論初痛再痛三痛 用荊防敗毒散 或荊防導赤散 荊防瀉白散 每日二貼式 至病解而用之 病解後 又用十餘貼 如此則自無後病而完健”

이다. 『東醫壽世保元』이전의 『草本卷』에 少陽人 대변은 하루에 두서너차례 보면 더욱 좋다¹¹⁾고도 하고, 太陽人, 少陽人은 대소변이 滑利하면 좋다¹²⁾고도 하였지만, 『東醫壽世保元』에 이르러 亡陰病에 대한 인식이 확립된 후로는 少陽人이라도 조금씩 자주 설사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하였다.

少陰人에게 있어서 대변은 2,3일에 한 번 정도 보는 것은 무방¹³⁾하지만, 胃家實의 大便不通과 少陰證 및 太陰證의 泄瀉는 病的인 것으로, 특히 少陰人 설사는 횡수가 많을수록, 기간이 길수록 重症이며, 건강한 사람이라도 한 달에 설사를 두 세번 하거나 乾便이라도 하루에 서너번 본다면 가벼운 환자라 할 수 없다¹⁴⁾고 하였고, 少陰人에 있어서 설사는 重한 것으로 頭痛發熱한 것보다 重한 것이라고 하였다¹⁵⁾.

太陰人의 경우에는 病的으로 表病의 泄瀉와

裏病의 大便秘燥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胃脘寒證의 치험례에서 평소 怔忡 無汗 氣短 結咳와 함께 泄瀉가 수십일 그치지 않는 것은 表病이 重해진 것¹⁶⁾이며, 燥熱證인 燥熱病態에서 大便이 秘結하게 되는 경우¹⁷⁾와 裏熱이 심해지면서 便閉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太陰인 呼散之氣의 부족과 肝大한 吸聚過多로 인한 것이다.

太陽人 大便은 정상으로는 穢로 滑해야 하고, 體大而多¹⁸⁾해야 하지만, 太陽人이 대변을 8, 9일간 보지 않은 것은 여유있는 병태는 아니어도 大病은 아니라¹⁹⁾ 하였고, 太陽人에게 腹痛 腸鳴 泄瀉 痢疾 등의 證이 있다면 小腸裏氣가 충실한 것으로 그 병은 치료하기가 쉽고 그 사람 역시도 완전히 건강할 것²⁰⁾이며, 太陽人이 병이 들어 앓는 중에 가슴이 아프면서 설사를 한다면 그 병이 비록 위중하더라도 끝에는 좋아질 것²¹⁾이라고 하여 太陽人의 保命之主인 吸取之氣를 고려하여 설명하고 있다.

대변 문항에서 少陽少陰人이 太陽太陰人에 비해 대변이 빈도가 적은 편이고, 몸 상태가 나쁠 때 설사가 잘 생긴다는 문항에 긍정의 답변이 많았고, 太陽太陰人이 少陽少陰人보다 대변을 하루라도 보지 못하면 답답한 경우가 많다는 문항에 긍정의 답변이 많은 것으로 분석이 되었다.

그런데, 少陽少陰人체질은 水穀之氣의 出納이 순조롭지 못하면 泄瀉 뿐만 아니라 便秘도 생길 수가 있으며, 太陽太陰人체질에서도 呼散

- 8) 『東醫壽世保元』 「少陽人裏受熱裏熱病論」 “少陽人大便頭燥尾滑 體大而疏通者 平時無病者之大便也 其次大便滑一二次快滑泄 廣多而止者 有病者之病快解之大便也 其次一二次尋常滑便者 有病者 病勢不加之大便也 其次或過一晝夜有餘不通 或一晝夜間三四五次小小滑利者 將瀉之候也 非好便也 宜預防”
- 9) 『東醫壽世保元』 「少陽人脾受寒表寒病論」 “少陽人 雖則熱勝 然 陽盛格陰 敗陰內通 則畏寒而泄下也 此之謂亡陰病也… 不急治 必死也 … 凡少陽人 裏病 有便秘則已爲重病也”
- 10) 『東醫壽世保元』 「四象人辨證論」 “少陽人 大便不通 則胸膈必如烈火” “少陽人胃受熱裏熱病論” “凡少陽人 大便 一晝夜不通 則胃熱已結也 二晝夜不通則熱重也 三晝夜不通 則危險也”
- 11)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 「病變」 第五統 “問 水穀之入於腸胃也 爲其所化一也… 曰 少陽人水穀之胃闊 而泄穀之大腸窄 譬如糞中酒醱宿醱密封則 熱氣易生也 少陰人泄穀之大腸闊 而水穀之胃窄 譬如停溜之水泉生泉益來則 寒氣易生也 是故 少陽大便一日數三次益好 少陰大便二三日一次無妨”
- 12)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 「病變」 第五統 “太陽少陽大小便滑利則 吉 太陰少陰 大小便滑利則 不吉”
- 13)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 「病變」 第五統 “少陰人泄穀之大腸闊而水穀之胃窄, 譬如停溜之水泉生 泉益來則寒氣易生也… 少陰人大便二三日一次無妨”
- 14) 『東醫壽世保元』 「少陰人 胃受寒表寒病論」 “少陰人泄瀉 日三度 重於一二度也 四五度 重於三二度也 而日四度泄瀉 則太重也 泄瀉一日 輕於二日也 二日 輕於三四日也 而連三日 泄瀉 則太重也 少陰人平人 一月間 或泄瀉二三次 則不可謂輕病人也 一日間 乾便三四度 則不可謂輕病人也”
- 15)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 「病變」 第五統 “少陰人 頭痛發熱病 病則病也 比之冷泄則輕症也”

- 16) 『東醫壽世保元』 「太陰人胃脘受寒表寒病論」 “嘗治 太陰人 胃脘寒證 瘧病 有一太陰人 素有怔忡 無汗 氣短 結咳矣 忽焉又添此一證 泄瀉 數十日不止 則表病之重者也”
- 17) 『東醫壽世保元』 「太陰人肝受熱裏熱病論」 “嘗治 太陰人 年五十近衰者 燥熱病 引飲 小便多 大便秘者 用熱多 寒少湯 藥本二錢 加大黃一錢 二十貼 得效矣… 凡太陰人 大便秘燥 小便覺多 而引飲者 不可不早治豫防”
- 18) 『東醫壽世保元』 「太陽人內觸小腸病論」 “太陽人 大便一則 宜滑也 二則 宜體大而多也”
- 19) 『東醫壽世保元』 「四象人辨證論」 “太陽人 有八九日大便不通證 其病非殆證也…”
- 20) 『東醫壽世保元』 「太陽人內觸小腸病論」 “太陽人 若有腹痛 腸鳴 泄瀉 痢疾之證則 小腸裡氣 充實也 其病易治 其人 亦完健”
- 21)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 「病變」 第五統 “太陽人病中 胸膈利泄則 其病雖重 終當效也”

과 吸納이 순조롭지 못하면 대변의 이상이 생길 수 있는 것이다. 이로 미뤄볼 때 분석결과와 문헌이 일치하진 않았다.

小便은 汗出과 더불어 氣液代謝의 산물로써 太陽人에게 있어서는 不足한 肝의 吸聚之氣에 대한 가늠으로 小便旺多를 完實無病으로 보고 있으며, 太陰人에 있어서 평소 소변상태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裏熱病에서 마시는 것보다 많은 소변을 배설하는 경우를 본다면, 肝의 吸聚之氣와 肺의 呼散之氣를 고려하였을 때 마시는 것보다 배설되는 소변량이 많은 것은 좋지 않은 것이다.

少陽人 소변에 관해서는 17歲 女兒에게 荊防地黃湯에 石膏를 사용한 치험례에서 讕語 發狂 小便秘結 不省人事한 상태에서 小便을 보게 되고 차츰 지나면서 狂證도 멈추게 되는 사례가 있으며, 浮腫이 풀리고 맺히는 예후를 역시 小便으로 관찰하는데, 小便赤한 것을 크게 경계하고, 小便이 淸하면 浮腫이 풀린다²²⁾고 하였다.

少陰人의 경우에 亡陽病에서 땀뿐만 아니라 小便의 多少를 같이 고려하여야 하는데, 小便淸利하는 險證과 小便赤澀하는 危證으로 병세가 나뉜다. 아울러 亡陽病치험례에서 小便赤澀의 증상이 있을 때 亡陽病이 치료되는 상황에서 소변이 맑아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少陰人 소변은 淸利한 것도 좋지 않으며, 赤澀한 것도 좋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 이로 보아 少陽人이나 少陰人 모두에게 소변이 赤澀한 것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

소변 문항에서 太陽太陰人과 少陽少陰人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던 문항은 1개로 太陽太陰人이 少陽少陰人에 비해 소변에 거품이 많다고 답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문헌과는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少陽少陰人체질에서 赤澀한 소변이 좋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설문문항을 통해서 유의한 결과를 얻지는 못하였다.

22) 『東醫壽世保元』 「少陽人泛論」 「浮腫爲病 急治則生 不急治則危 … 大畏小便赤也 小便淸則浮腫解 小便赤則浮腫結」

사상인 개별 체질별로 소화와 관련하여 살펴 보면, 少陰人에게 있어 消化는 完實無病의 조건이기도 하면서, 病的인 상황 하에서 예후판별을 하는데 있어서도 관건이 된다. 少陰人 霍亂 關格病에서 人中汗 다음으로 食滯大下를 免危하는 것으로 판단하며²³⁾, 少陰人이 病中에 웅장하게 소리내어 숨을 내쉬고 찬물 마시기를 좋아하면 병이 위중하더라도 끝에는 좋아질 것²⁴⁾이라고 한 것이 그 예이다. 그리고, 少陽人 역시 소화상태로 건강상태의 지속여부를 관찰하는데, 病中에 마음이 가라앉아 안정되고 천천히 음식을 먹는다면 그 병이 비록 위중하더라도 끝에는 좋아질 것²⁵⁾이라고 하였고, 잘 먹고 편안히 자는 것이 좋은 징조²⁶⁾라고 하였다. 太陽人의 경우에는 草本卷에서 “太陽人과 少陽人에서 오직 구역질하고 음식을 토하면 그 병이 진행되는데, 少陽人이 더 심하게 악화되는데…²⁷⁾”라고 하였고, 肉浮多食을 太陽人의 凶證²⁸⁾이며, “食脹” 역시 진실로 중증으로 결코 가벼운 증이 아니라²⁹⁾고 하였다.

소화 문항에서 太陽太陰人과 少陽少陰人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던 문항은 5개로, 太陽太陰人이 문항3(식사속도가 빠른 편이다.), 문항1(평소 식사량이 많은 편이다.), 문항2(식욕이 왕성한 편이다.), 문항6(소화가 잘 되는 편이다.)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할 가능성이 높았고, 少陽少陰人이 문항11(신경을 쓰면 소화가 되지 않는다.)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할 가능성이 높았는

23) 『東醫壽世保元』 「少陰人胃受寒裏寒病論」 「蓋少陰人 霍亂關格病 得人中汗者 始免危也 食滯大下者 次免危也 自然能吐者 快免危也」

24)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 「病變 第五統 “少陰人病中 雄壯叫呼 喜欲冷水則 其病雖重 終當效也”

25)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 「病變 第五統 “少陽人病中 沈潛安靜 稍稍進食則 其病雖重 終當效也”

26)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 「病變 第五統 “能食安寢少陽之吉祥”

27)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 「病變 第五統 “太陽少陽之病 嘔逆吐食者 其病進也”

28)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 「病變 第五統 “肉浮多食太陽之凶證”

29)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 「病變 第五統 “少陽之面腫 少陰之眩暈 太陽之食脹 太陰之昏倦 真是重症 終非輕證”

데, 임상연구 결과 역시 水穀之氣病證을 가진 少陽少陰人 체질에게 소화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문헌상에서 언급된 太陽太陰人과 少陽少陰人의 특징을 땀, 대변, 소변, 소화에 관한 문항으로 나누어 비교 분석한 결과 『東醫壽世保元』이나 『草本卷』과 일치하는 결과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결과를 얻기도 하였다.

연구 결과와 문헌 내용과 차이가 나는 이유는, 연구 대상 집단인 1,229 명의 내원환자들의 체질별 구성인원이 균등하지 못하였다.

즉, 少陽少陰人 체질이 太陽太陰人 체질에 비해 두 배 이상인 상황에서 설문, 분석이 이루어진 것을 감안하면 좀 더 신중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연구집단인 1,229명 중 太陽人이 14명인 것으로, 太陽人의 성향이 太陽太陰人에게 반영되었다기 보다는 오히려 太陰人의 성향을 두드러지게 반영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연구집단을 다양화하고, 체질별 구성원이 충분하고 동등한 상황에서 이뤄진다면, 좀 더 세밀하고 정확한 연구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사료된다.

V. 結 論

太陽太陰人과 少陽少陰人의 특징을 비교하기 위해 2002년 10월 28일부터 2004년 2월 16일까지 동국대학교 분당 한방병원 사상체질과에 내원하여 사상체질과 설문지를 작성하고 임상적으로 체질진단을 받은 외래환자 1,229명을 대상으로 설문·응답한 결과를 이항 로지스틱 분석을 통해 비교·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땀에서는 少陽少陰人이 太陽太陰人에 비해 평소에 땀을 많이 흘리지 않고, 땀을 흘리고 나면 상쾌하지 않으며, 밤에 잘 때 땀이 나지 않고, 몸 상태가 나쁠 때 식은땀이 나며, 식사할 때 땀이 나지 않는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2. 대변에서는 少陽少陰人이 太陽太陰人에 비해 대변을 보는 빈도가 적으며, 몸 상태가 나쁠 때 설사가 생기며, 대변을 하루 거르더라도 답답함을 느끼지 않는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3. 소변에서는 少陽少陰人이 太陽太陰人에 비해 소변에 거품이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4. 소화에서는 少陽少陰人이 太陽太陰人에 비해 식사속도가 빠르지 않고, 평소 식사량이 많지 않으며, 식욕이 왕성하지 않고, 소화가 잘 되지 않는 편이며, 신경을 쓰면 소화가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VI. 參考文獻

1. 李濟馬著. 東醫壽世保元. 여강출판사, 서울, 2002.
2. 李濟馬原著. 朴性植譯解.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 집문당, 서울, 2003.
3. 이수경, 송일병. 동의수세보원 태소음양인의 병증론에 관한 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1999;11(2): 1-26.
4. 최재영. 太少陰陽人의 素證에 관한 임상적 연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동국대학교 대학원. 2003.
5. 윤승미. 素證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6. 李廷燦, 金達來. 大便을 中心으로 한 四象體質 病證에 對한 考察. 사상체질의학회지. 1992; 4(1):171-177.
7. 최재영, 박성식. 사상체질에 따른 대변의 특징에 대한 임상적 검토. 사상체질의학회지. 2002; 14(2):58-68.
8. 김명균, 박성식. 汗과 小便을 중심으로 太陰人 肝受熱裏熱病과 少陽人 胃受熱裏熱病의 病理에 대한 비교 考察. 사상체질의학회지 2004;16 (1):37-43.
9. 최재영, 이영섭, 박성식. 사상체질에 따른 땀(汗)의 특징에 대한 임상적 검토. 대한한의학회지. 2002;23(4):186-195.
10. 최정락, 박성식. 사상체질에 따른 수면의 특

- 징에 대한 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2003;15(3): 204-215.
11. 김명균, 박성식. 睡眠이 四象體質 病證管理 指標로써의 역할에 대한 考察. 사상체질의학회지. 2004;16(2):52-57.
 12. 백태호, 최정락, 박성식. 消化에 관한 체질별 상관성 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2004;16(1): 112-119.
 13. 김정주, 이영섭, 박성식. 태양소양인과 태음소음인의 수면,대변,소변에 관한 임상적 고찰. 사상체질의학회지. 2005;17(3):82-90.
 14. 김종섭. SAS v8.2를 이용한 통계분석의 이해. 한울출판사. 2004.



부록 1. 설문지

- 땀 -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평소에 땀을 많이 흘린다	①	②	③	④	⑤
2. 땀을 흘리고 나면 상쾌하다	①	②	③	④	⑤
3. 식사할 때 땀이 난다	①	②	③	④	⑤
4. 밤에 잘 때 땀이 난다	①	②	③	④	⑤
5. 손발바닥에 땀이 난다	①	②	③	④	⑤
6. 특히 목 위로 땀을 잘 흘린다	①	②	③	④	⑤
7. 흘린 땀이 끈적끈적하다	①	②	③	④	⑤
8. 몸 상태가 나쁠 때 식은땀이 난다	①	②	③	④	⑤
9. 몸 상태가 나쁠 때 손발바닥에서 땀이 나면서 병이 낫는다	①	②	③	④	⑤
10. 몸 상태가 나쁠 때 코밑에서 땀이 나면서 병이 낫는다	①	②	③	④	⑤

- 대 변 -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변비가 있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 大便을 보는 시간이 길다	①	②	③	④	⑤
3. 大便을 보면 시원한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4. 大便이 굳은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5. 大便이 묽은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6. 大便을 하루라도 보지 못하면 답답하다	①	②	③	④	⑤
7. 몸 상태가 나쁠 때 설사가 생긴다	①	②	③	④	⑤
8. 몸 상태가 나쁠 때 변비가 생긴다	①	②	③	④	⑤
9. 大便의 빈도는?	① 1일 3회이상 ② 1일 1~2회 ③ 1일 1회 ④ 1~2일 1회 ⑤ 2일이상 1회				
10. 大便의 색깔은?	① 황색 ② 갈색 ③ 검은색 ④ 푸른색 ⑤ 회색				

- 소 변 -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小便을 자주 보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 小便 양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3. 小便 볼 때 시원한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4. 小便을 야간에 자주 보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5. 小便에 거품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6. 小便을 지릴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몸 상태가 나쁠 때 小便 양이 줄어든다.	①	②	③	④	⑤
8. 몸 상태가 나쁠 때 小便 색이 짙어진다.	①	②	③	④	⑤
9. 小便의 빈도는? ... ① 1일 2회 이하 ② 1일 3~4회 ③ 1일 5~6회 ④ 1일 7~8회 ⑤ 1일 9회 이상					
10. 小便 색갈은? ① 맑은 색 ② 짙은 노란색 ③ 회뿌연 색 ④ 붉은색 ⑤ 콜라 색					

- 소 화 -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평소 식사량이 많은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 식욕이 왕성한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3. 식사속도가 빠른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4. 식사를 규칙적으로 한다	①	②	③	④	⑤
5. 한 끼라도 굶으면 견디기 힘들다	①	②	③	④	⑤
6. 소화가 잘 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7. 잘 체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8. 찬 음식을 먹었을 때 소화가 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9. 기름진 음식을 먹었을 때 소화가 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10. 감기 등으로 몸 상태가 나쁘면 입맛이 별로 없다	①	②	③	④	⑤
11. 신경을 쓰면 소화가 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